

있어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책

서점에 나가보면 간혹 어떤 책이 아주 엉뚱한 서가에 가서 꽂혀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분류가 까다로운 책일 때는 응당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정말 완벽하게 잘못 꽂혀있는 책은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하여금 가끔씩 배꼽을 잡게 만든다. 지난해 여름 포스트모던 계열의 소설 「미국의 송어 낚시」가 번역돼 나왔을 때 이 책은 제법 오랫동안 한 대형서점의 낚시코너에 가 꽂혀있었다. 아마도 그것을 분류한 사람들은 그 책이 낚시광들의 미국행 송어낚시 원정에 도움될 만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를 일이다. 이같은 일은 '전문서점'에서도 간혹 일어난다. 최근 시내의 한 영화서점에는 각종의 관련 책 사이로 일본의 반핵운동가가 쓴 「누가 존재인을 죽였는가」도 끼여있었다. 이 책의 서문은 몇페이지에 걸쳐 핵개발의 가공할 후유증

을 경고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이같은 오류들은 꼭 서점에서만 있는 일은 아닌 듯하다. 대학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서도 알게모르게 이런 일들은 비밀비재한 듯하다. 대출한 흔적은 없는데 책이 없어 찾아보니 아예 엉뚱한 곳에 꽂혀있었다거나, 한 주에도 수백종씩 들어오는 신간이나 정기간행물을 정리하다 보면 손이 떨리기도 하나 '몰라서' 잘못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서들의 토로는 서점의 오류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던진다. 사실 古典연구자들을 위해 '板本'을 구분해가며 해박하게 도움말을 해주는 사서를 만나기 어려운 것이 우리 도서관의 실정 아닌가. 일부에서는 도서관의 전산화만 이루어지면 단번에 도서관의 전근대성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보나 '전산화'는 사서들의 잡무를 줄이고 정보

의 효율적 이용을 극대화하는 것이지 사서의 '고유역할' 까지 대신해주진 않는다 본다. 오히려 전산네트워크가 잘 짜여질수록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더 유능한 사서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광학문자해독장치'와 같은 기계로 목록작업을 대신하는 첨단분류방식의 한켠에서는 사서들의 '수공업적인 목록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도 그것을 뒷받침한다.

오는 2월7일로 '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지 1년을 맞는다. 이 법에는 '전문직사서관제도입' 등 도서관진흥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들이 여럿 들어 있었다. 현재 'Paperless시대의 도서관'을 지향하며 갖가지의 첨단기술을 동원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의 '도서관진흥법' 1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서점이나 도서관이나 책이 독자와 만나는 마지막 창구인 이곳에서 책의 갑작스런 '실종'이나 '혼선'을 빚는 사례들을 보면서 이용될 수 없는 책은 곧 존재하지 않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정혜옥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99호 / 1992년 2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鐵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晝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李明希
 사진 — 金弘銀

업무차장 — 尹東鎭
 업무·광고 — 李養天 崔炳天 金允淳 金枚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章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泰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淵昊
 宋相庸 申福龍 慎鍾夏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康淑 李瑛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曠 李萬烈 李炳勳
 李相日 李勝羽 李元毅 李重漢
 李姬載 林煥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雲暎 鄭雲錫 鄭晉錫
 鄭鎮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慶 韓勝憲 許碩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계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재미있는 책이야기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의 책인 筆寫本은 책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를 보인다는 점, 특히 필사자의 개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기계화된 출판물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 필사본의 재료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종이이지만, 종이가 나오기 이전에는 이른바 '파피루스'를 비롯해 점토판, 양피지 등도 널리 쓰였으며, 특이하게는 밀랍으로 만든 책도 비교적 오랫동안 쓰였다. 이 밀랍책은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스타일'이란 말의 기원과 연결돼 있기도 해 흥미를 끄는데, 다음에 러시아 작가 미하일 일리인의 「책 시계 등불의 역사」(심성보 옮김, 연구사)에서 밀랍책에 관한 부분을 발췌 소개한다.

양초는 누구나 다 아는 물건이다. 하지만 밀랍책은 오늘날 대단히 희귀한 물건이다. 로마인이 만들어낸 밀랍책이 지난 세기(1800년대)초까지 즉, 프랑스대혁명 초기 무렵까지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밀랍책은 호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공책만한 크기의 판자들로 만든 것이다. 작은 판자 하나하나를 노란색이나 검은색의 밀랍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작은 판자 안쪽의 양쪽 끝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에 끈이 꿰여져 있으며, 그것으로 작은 판자 한장한장을 묶

어 한편의 작은 책이 되도록 철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첫번째와 제일 마지막 작은 판자에는 밀랍이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것은 책을 철할 때 작은 판자 안쪽에 쓰여있는 글자가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밀랍판자에 글씨를 썼을까? 잉크로 쓰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사람들은 스타일러스(stylus)라는 조그만 강철 막대기를 사용해서 썼다. 그 막대기의 한쪽 끝은 뾰족하고 다른 쪽은 둥글게 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 뾰족한 끝으로 글씨를 쓴다기보다는 활공해서 글씨를 썼다. 그리고 둥근 쪽은 글씨를 지우는 데 사용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지우개의 선조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밀랍판자는 값이 아주 싸다. 그러므로 메모를 하거나 무엇을 베끼거나, 계산을 하거나 또는 그 비슷한 일을 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집트에서는 수입한 값비싼 파피루스는 책을 만드는 데만 사용되었다.

게다가 밀랍판자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었다. 로마인이 밀랍판자에 편지를 써 보내면, 대개 답장은 그 판자의 뒤쪽에 쓰여서 돌아왔다. 사람들은 판자 위에 얼마든지 글씨를 쓸 수 있었다. 즉 스타일러스의 둥근 끝으로 글자를 지우고 다시 썼던 것이다.

그 무렵 젊은 작가에게 흔히 했던 충고는 "스타일러스의 둥근 끝을 몇 번이든지 사용하게!"라는 것이었다. 몇번이든지 문장을 고쳐 써서 훌륭한 문장을 만들라는 뜻이다. 글씨를 쓰는 도구였던 스타일러스는 이미 오래전에 자취를 감추었지만 그 흔적은 아직도 남아 있다. 우리는 지금도 작가가 능란하게 글을 쓸 때는 그 작가가 좋은 '스타일(style)'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밀랍판에 쓴 글자를 손쉽게 지울 수 있다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 전하는 사람의 부주의로 도중에서 내용이 완전히 지워져버려, 중요한 비밀편지의 내용이 지워진 채 도착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사람들은 때때로 진짜 편지 위에 다시 한번 밀랍을 덧칠하고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함께 식사를 하십니까" 따위의 의미없는 말을 쓰기도 했다.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사람들은 덧칠한 밀랍을 주의깊게 벗겨내고 밑에 칠한 밀랍 위에 쓰여 있는 진짜 편지를 읽었다. (중략)

우리가 밀랍판을 쓰지 않게 된 것은 연필과 값싼 종이가 발견되고 난 후의 일이다. 몇백년 전의 학생들은 모두 허리띠에 밀랍판을 매달고 다녔다. 독일 북쪽에 있는 항구도시 뤼벡시에 있는 제임스 교회의 하수구에서는 학생들이 글씨를 쓰는 데 사

용했던 판들이 무수히 발견되었다. 거기에서는 많은 스타일러스와 양피지를 다듬는 데 사용했던 칼,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의 종아리를 때릴 때 사용했던 막대기도 발견되었다. (중략)

학생들만 밀랍판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수도원의 승려들은 밀랍판에 교회의 근무일지를 기록했으며, 시인들은 밀랍판에 시를 썼다. 그리고 상인들은 밀랍판에다 계산을 했으며, 신사들은 귀부인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결투장을 쓸 때 밀랍판을 사용했다. 어떤 사람들은 너도밤나무로 만든 판자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오래 쓸 수 있게 바깥쪽에 무두질한 가죽을 씌운 것이었는데 안쪽에는 지방이 섞인 더러운 밀랍이 칠해져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나무로 훌륭한 판자를 갖고 있었다. 그밖에 아름다운 상자로 만든 판자도 있었다. 13세기 파리에 있는 이 판자를 만드는 가게까지 있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밀랍판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이 판들은 우리가 낡은 종이를 처분하듯이 오래 전에 불태워졌거나 산처럼 쌓인 쓰레기더미 속에 내던져졌다. 오늘날, 2천년 전에 로마인이 쓰던 밀랍판 한 장을 사려면 엄청난 돈을 치러야 한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로마시대의 밀랍판은 몇 안된다. 그것들 대부분은 폼페이에 있는 한 은행가의 집에서 발굴한 것이다.